

# 여부수 족과 예루살렘 성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PostView.naver](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 여부수 족과 예루살렘 성



**altazor**

2010. 9. 8. 19:01



예루살렘 성의 모형

## 여부스(jebusite)족과 예루살렘 성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중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 그러나 다윗은 요새인 시온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은 다윗 성이 되었습니다. 8 그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땅 속 물길로 가야한다. 그러면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9 그리하여 다윗은 요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다위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사무엘하 5:6-9)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기 전까지 이 성에 살던 부족입니다. 다윗은 BC 1003년에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고, 이를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된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따르면 여부스 사람들은 헛(히타이트)족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예루살렘의 족장은 아브람함에게서 십의 일조를 받았던 멜키세덱으로 나옵니다. 학자들은 멜키세덱이 여부스 족장인지 아니면 여부스 족이 예루살렘에 살기 전에 살았던 다른 부족의 족장이었는지 확실하게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랍비문학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여부스족의 지역에서 막벨라 동굴을 살 때, 여부스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부수를 공격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맺게 하고, 이를 청동판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기록한 청동판이 여부수 성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부수가 사는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청동판 계약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청동판을 부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요압 장군이 청동판을 부수어 그 상을 받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 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먼저 물리쳐야 여부수 성에 들어올 수 있다고 여부수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랍비 문학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부수성에는 아브라함과 여부수 사이의 계약을 입에 머금은 눈 먼 자와 다리 저는 자의 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이삭과 야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맺은 여부수와 이스라엘 후손과의 계약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 올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부수의 후손들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학교 교과서에 수록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부수의 후손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는 오늘날까지 전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